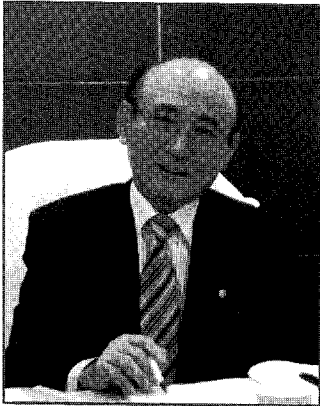


[시론]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박기준 회장
 “ 위기지만 또한 기회다 ”



지난 3월 지식경제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온돌 관련 국제표준안이 국제 표준기구 기술위원회(ISO/TC) 회원국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의 온돌을 북사난방의 국제표준으로 삼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서구의 난방방식인 대류난방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돌 문화는 기원전 4000년 이전부터 시작해 쾌적함, 청결성, 열효율 등이 높아 수천 년간 이어지며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업과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태세이다. 이제 온수·온돌문화의 종주국으로서 난방시공기술에 대해 브랜드화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보일러설비협회도 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며 준비하는 중이다. 지금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면서도 화석연료

사용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 교토협약 체제가 시작되는 2013년 이후는 감축의무가 가시화됐다. 이에 따라 에너지에 관한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감축문제는 선진국의 에너지 사용, 경제구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목표 설정과 이행방법을 둘러싸고 국가들 간의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대한 대비로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분야 중추적인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수립·발표했다. **디지털 가스신문**과 **에너지신문**이 후속 계획의 수립으로, 각종 시책과 에너지에 대한 변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설비업계는 불황으로 유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산 서브프라임이 선두로 금융위기가 국내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여파로 실물경기의 침체까지 예상된다. 또 많은 지역에서 뉴타운 건설과 재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보일러의 교체물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자격 불법시공자들로 인해 시공업계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보일러판매점에서도 보일러 시공을 하면서 그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과거에는 보일러만 교체 내지 설치·수리로만으로도 업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한계에 왔다. 소비자는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편리함과 더불어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경향으로 보일러시공만으로 업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설비업 종사자는 이제 다재다능하고 전문화된 기술을 보유해야 하며 서로 공조체제를 갖추어 협동해야 한다. 여기에는 협회의 역할이 크다.

전국보일러설비협회는 회원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저탄소의 녹색성장의 선두주자’로 최전선에서 정격시공을 하며 에너지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안전하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회원세미나, 워크숍, 수련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별도의 온수·온돌연구위원회를 두어 선진적인 시공방법, 신기술, 신공법 등을 연구·발굴해 시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위기지만 또한 기회다. 어느 해의 언론에서 이번 국제적인 위기로 대한민국은 더 부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어렵지만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 국민모두가 각자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고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헤쳐나가면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았다면 더 힘찬 도약의 기회가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